

남자 간호대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과정

박 인 숙

대동대학 간호과 전임강사

The Adaptation Process of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Park, In-Sook

Full-time Lecture,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Daedong College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ied the male student's meaning system on their adaptation experience in department of nursing where female students are in the majority.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of 9 male student and analysed through the grounded theory methodology. **Results:** The behaviors of male students for department-adaption can be summarized as a 'being uncomfortable' with female students in department of nursing. **Conclusion:** A specific strategy is needed to provide an environment that is helpful for males in integrating into and adapting to the nursing studying.

Key Words: Nurse, Male student, Adaptat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통적으로 간호직은 여성의 고유한 직종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 직업에 대한 남녀 차별적인 구분이 점점 사라지는 분위기로 인해 남자 직업 혹은 여자 직업이라는 시각이 줄어들고 있다. 디지털보사(2009)는 국내 남자 간호사 수는 2009년 2월 현재 2687명에 이르고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 수도 계속증가, 2008년 4월 현재 4,537명으로 전체 학생의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 비율 역시 저학년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향후 매년 1,000여명이 배출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남자 간호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는 간호직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Boughn (2001)은 취업이 용이하고 높은 보수

가 보장되며 상대적으로 남성이 소수를 차지하는 분야에 도전하면 그 분야에서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성취욕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의 수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Evans (1997)는 이러한 변화가 남자 간호사들이 일단 간호직을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전문화된 간호영역에서 남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의사들의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Sweet, 1995), 남자 간호사의 간호직 내에서의 특권과 이득(Williams, 1995), 남자 간호대학생의 학과 적응 경험(김남정, 두현정, 안지연, 이윤경, 이정섭, 2005) 등의 남자 간호사나 간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는 것은 남자 간호사의 수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남자 간호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많으나 남자 간호사 배출의 원천인 남자 간호대학

주요어: 남학생, 간호대학생, 근거이론

Address reprint requests to: Park, In-Sook,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Daedong College, Keum An 8 lo, KeumJung-gu, Busan 609-715, Korea.
Tel: 82-51-518-5444, Fax: 82-51-514-5847, E-mail: proipark@hanmail.net

- 이 논문은 2009년도 박인숙 외의 연구내용을 수정하여 작성된 내용임.
-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article in 2009.

투고일 2011년 6월 23일 / 심사완료일 2011년 9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1년 9월 29일

생 대상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어, 본 연구에서는 남자 간호대학생의 학과 적응 과정을 근거이론적 접근을 통해 연구해 보았다.

Evans (2004)는 ‘간호는 여성의 직업이다’라는 사회 통념은 남학생이 간호 전문성을 갖추게 되는데 필요한 가치와 신념 형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직업 정체성을 갖는데 혼동을 주게 된다고 하였다. Avery (2001)는 특히 학과의 교육과정과 임상실습도 지극히 여성 중심적이어서 아무리 간호에 대한 확고한 선택 동기를 가지고 있는 남학생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들의 학교생활과 임상실습에 대한 적응 수준은 그다지 높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였다.

이동재(2004)는 간호의 이미지가 여성성의 강조에서 벗어나야 함은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상적인 간호사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양성성(兩性性)의 유형 즉 남성의 특성과 여성의 특성을 모두 갖춘 사람이 이상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조정자, 이동재(2004)는 실제 대부분의 여성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간호대학과의 교육 환경 역시 여성 중심적이어서 남자 간호대학생은 사회의 왜곡된 성 고정 관념과 여학생 중심의 간호 교육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남학생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배제된 규정에 대해 불만을 가진다.

간호학과 남학생의 경우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잘 극복하고 간호인으로서의 사회화가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간호영역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여학생으로 구성된 학교생활에서 남학생들이 겪는 고충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미미한 실정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근거 이론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과정에 대한 탐색을 통해 그들의 적응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남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보다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자들의 인적 구성은 질적 연구를 강의하는 교수와 질적 연구 모임을 갖는 박사과정 생으로 구성되어, 질적 연구 분석 및 수행을 위한 준비를 갖추었으며, 질적 연구방법 중 근거이론 접근 방법을 적용한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와의 심층면담과 참여 관찰을 통해 남자 간호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정해진 분석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자가 지닌 선입견을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경북 소재 A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였으며,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진행하였다. 1학년 3명, 2학년 3명, 3학년 3명으로 총 9명이며, 나이는 20세에서 26세의 범위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09년 03월에서 09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자료수집은 방과 후 개별적으로 강의실 및 연구실에서 실시하였다. 면담 진행은 감정이입(感情移入)과 함께 적당한 질문으로 내면의 경험 세계를 열도록 하였다. 대상자의 양해 하에 녹음기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녹음하였으며, 면담 후 즉시 내용을 필사하였고 의문이 나거나 부족한 내용은 다시 면담하여 보충하였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연구자의 주관적인 내용이 추가되는 것을 최소화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trauss와 Corbin (1990)의 근거이론방법론 분석에 따라 개방코딩을 통해 범주들을 도출한 후, 축코딩을 통해 범주들과 관련성을 확인하면서, 선택 코딩을 통해 남자 간호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경험에 대한 중심현상을 발견하였고, 범주들의 관련성을 정렬화시켰으며 이를 중심으로 이야기 윤곽을 전개하면서 실제 이론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근거자료에서 나타난 개념은 총 72개로 하위범주 28개, 상위범주 11개로 범주화되었다. 인과적 조건은 성(性)차이였고, 맥락적 조건은 타인에 대한 인식, 학과의 특성, 남학생의 수였다. 중재적 조건은 주위로부터의 지지, 개인적인 성향, 미래에 대한 확신이었고,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다스리기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남자 간호대학생들이 학과에 대체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패러다임에 따른 범주는 Table 1과 같다. 자료에서 본 것과 같이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적응과정은 집단 내에서 이성간의 ‘불편감’이 중심현상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불편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적응과정의 양상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남학생의 적응 과정은 Figure 1과 같다.

Table 1. Conception and Category using Grounded Theory Approach

Paradigm	In the higher category	In the lower category
Conditions based on cause & effect	Prejudice in gender	There are different types of behavior There are different structures of cognition
Main phenomenon	Inconvenience	It's an inconvenience to go with schoolgirls
Condition based on a thread of connection	Sensitive to others	Regarding an eyes of others Alteration in one's eyes to male nurse
	Characteristics	Variety Heavy burden Stiff competition Unsatisfactory to a strong leaning towards female on education Unsatisfactory to an educational precedence
	Number of schoolboys	Qualms as a schoolboys Anxiety about estrangement by a lack of understanding on female organization Sense of loneliness and estrangement as a minority Embarrassment about being relegated to the margins of practice hours
Condition based on arbitration	Being supported from the rest of the world	Role model Being supported
	Personality traits	Acknowledgement of the personality traits Alteration in the cognition to schoolgirls
	Confidence in their own future	Motivation to select their academic department Detailed plan for the future as a nurse Rose-colored future as a professional in the medical industries
Strategy of the action/interaction	Control	Seeking the meaning Turning dreams into reality through the practice Making the effort Mind over matter
As a result of that	Adjustment to a environment	Positive advocacy for the study Finding a positive vision

인과적 조건- 성(性)편견

성 차이는 간호학과 내 남학생들이 다수의 여학생 집단 가운데서 ‘소수의 다른 성(Minor different Gender)’으로서 ‘불편감’을 인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불편감’에 대한 인과적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1) 행동 양상이 다름

참여자들은 근본적으로 성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때, 남자와 여자는 모든 기능과 구조적인 면에서 다르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사고, 인지, 행동의 구조 및 기능에 따른 차이점으로 인해 행동 양상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같지 않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끼리끼리>

“여학생들은 패밀리가 있어요. 몇몇이 모여서 패밀리끼리 정해버리고 그런 게 안타까워요”

2) 인식 구조의 다름

성차이로 인해 간호학과 내 남학생들은 매 순간 여학생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여학생과의 공통점을 찾지 못하고 다수의 여학생과는 다른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편견>

“남성과 여성의 편견 때문에 힘든 거 같아요. 만약에 교수님이 레포트 내면 몇 포인트, 몇 장 등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나요? 그냥 주제 주시고 레포트 언제까지 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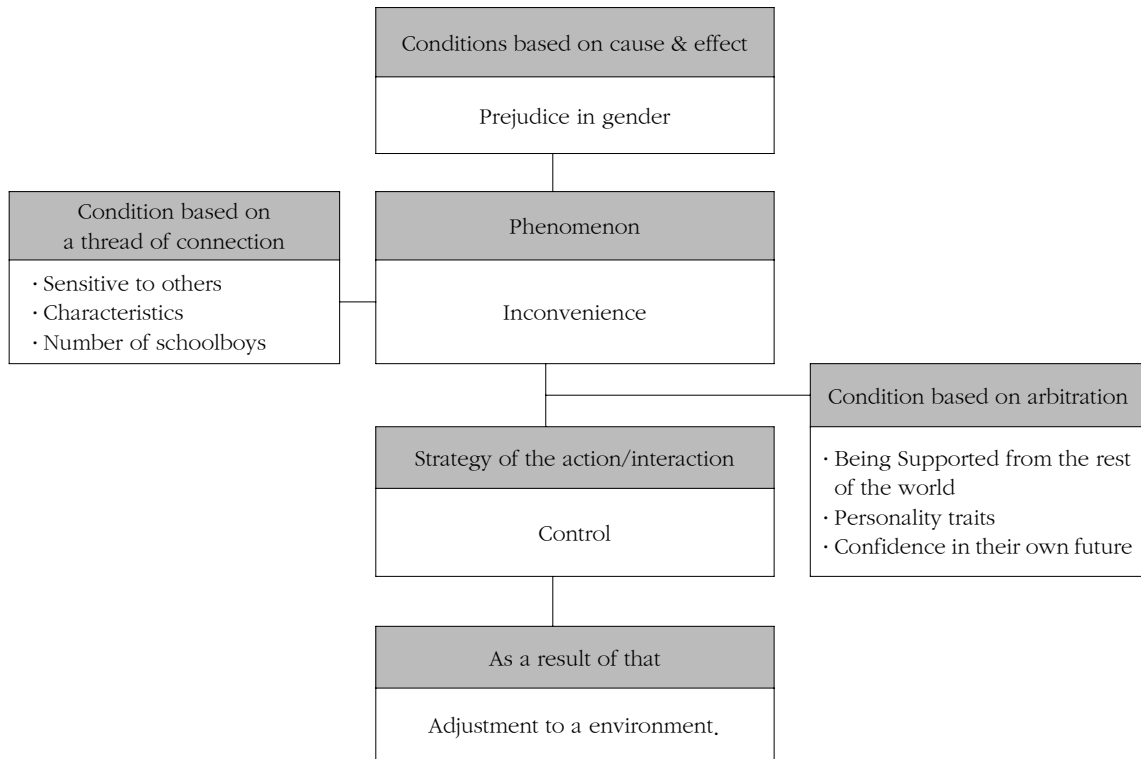


Figure 1. Adaptation process of male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nursing.

하시면 되지. 그래서 그런지 레포트 쓸 때 여학생과 이런 세밀한 부분에서 충돌이 좀 있어요”

<과제 수행의 갈등>

“모르는 사람끼리 하면 남자들은 레포트에 목숨을 걸지 않는 데 여자들은 장난 아니게 과제를 하고, 남학생들이 못 따라주면 뭐라 뭐라 소리나 하고 해서 갈등이 있어요”

<성차에 따른 성격의 다름>

“여자동기들과 지내면서 포기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남자들은 욕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참기 어려워요. 여자는 욕하고 나면 충격을 받잖아요. 남자는 욕했다가도 풀리는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가 봐요”

맥락적 조건- 타인에 대한 인식, 학과 특성, 남학생 수

맥락은 불편이라는 경험에 영향을 주는 구조적 혹은 상황적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즉 불편감에 대한 속성과 정도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 혹은 상황적 맥락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불편감의 경험으로 인한 적응 과정이 다르게 나타난다. 맥락의 각 범주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타인에 대한 인식

학과 선택에 대한 주변의 편견과 기대에 대한 반응을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참여자들의 적응 전략이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간호학과를 지원했을 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주변 지지 자원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러한 긍정적인 반응을 스스로 잘 수용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전략 패턴을 보였다. 참여자들은 사회 통념이 대부분 남녀 관계에 대해 고정적이고 편협하기 때문에 여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왜곡된 타인의 시선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러한 시선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서 적응 전략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고정관념에 대한 편향적 인식>

“남자가 무슨 간호학과냐고, 간호학과에 가면 솔직히 남자가 나중에 가장이 돼서 짊어지고 가야 하는데 자식이 아버지 직업이 뭐라고 물으면 간호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2) 학과 특성

학기 중 이수해야 할 학점이 많은 간호학과의 특성으로 인하여 학우 간 경쟁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전공 수업과 실

습을 병행해야 하는 특수한 교과과정으로 인해 간호학과 내 학생들은 학우들끼리의 친목을 도모에 시간적인 제약을 갖게 된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여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적이라고 하였고, 결과적으로 여학생들과 많은 것을 함께 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수인 자신들이 그들로부터 불편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다.

<다양성-남학생 사이에 파벌이 생김>

“남학생들은 남학생들끼리 또는 여학생들과 잘 지내는 그룹으로 나뉘지고 또는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남학생들도 제법 되니까 그 안에서도 파벌이 있어요”

<부담감-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2학년 1학기 때 많이 힘들었어요, 3주 공부하고, 4주 공부하고 시험치고 그때는 시간이 없었어요, 한 2주 지나고 나니까 시험이고, 그러고 범위를 적게 나가는 것도 아니고 범위는 책 한권 거의다 나가놓고서 시험이고... 그중에서 레포트 제출안한 과목도 있고, 시험공부도 해야 하고, 수시고사도 치러야 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다가 어쩌다 보면 또 시험기간이고 주관식은 얼마나 많은데, 공부하는 게 힘들었어요...”

<부담감- 스트레스>

“저는 전형적인 남자 스타일이고... 스포츠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좋아하는데 여성들의 직업인 곳에 와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경쟁적 분위기>

“정말 경쟁적이 되어졌어요. 여자아이들이 특히, 여학생들은 경쟁적이에요. 잘 도와주는 하는데 완전한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아쉬움-여성 편향적 교육>

“간호학이 여성분들이 커리큘럼을 짜고 가리키니 여성편향의 교육이어서 저는 남자 교수가 있었으면 어떨까? 전문직이라면 어느 한 성별집단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같이 가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균형을 잡았으면 해요”

<불만-서열식 분위기>

“간호계가 약간은 군대 같은 규율이 있고 2학년이 이유도 말하지 않고 하라는 식이어서 불만이 많았어요.”

3) 남학생의 수

참여자들은 여학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단 속에서 남학생수가 적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불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참여자들은 동성에 의한 지지가 충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은 이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해서 다수의 여학생으로부터

분리되어 불편감을 가지고 있었다.

<거리낌-오해>

“여학생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요. 혹시나 오해하지 않을까. 그냥 도와주는 건데”

<거리낌-여성 집단들의 특성>

“과제가 있으면 진행을 해야 하는데 여학생들은 모이면 드라마 이야기하고... 빨리 진행은 해야 하는데 결국 악역은 제가 맡게 되는 거죠. 어서 시작하자. 그래서 욕 많이 먹죠.”

<걱정-여성 조직사회의 두려움>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여성 조직사회에서 융화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게 대부분 첫 임상실습에서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외로움-외톨이>

“가만 딱 아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완전할 것도 없고, 황당하게 가지고 첫날 O.T 하는데 완전 저 혼자 뭐 된 거 같고.”

<외로움-막막함>

“학교 O.T 가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막막해요. 친구라든지 그런 것도 막막하고, 학교 어떻게 다녀야 하는 건지도, 바로 다음날 수업 시작하는데 당황해 가지고.....”

<외로움-혼자 남겨짐>

“1학년때는 혼자 남자였어요. 그래서 여자들 그룹에 끼여들기도 힘들었고요. 청일점에 과대까지 해서, 최악이었지요.”

<외로움-군입대>

“1학년 애들 전부 군대가잖아요. 그니까 친했던 애들 가고 기숙사에도 이제 놀 사람도 없고 그나마 간호관에서도 남자애들하고 같이 있으면 지겹지는 않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수업 들고고 그러면 재미도 없고 시간도 안가는 것 같고, 친구도 없으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친하던 애들도 가고 그러니까.”

<어려움-실습현장에서의 편견>

“실습은 두 병동 가봤어요. 그런데 산과 쪽이 좋은데 남자는 잘 좋아하지 않으시는 거 같아요.”

<어려움-실습의 한계>

“2학기 때는 모성을 나갔는데 나가있으라고 하셔서 단절감을 느꼈어요.”

<어려움-커리큘럼의 버거움>

“공부는 힘들지 않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힘들어요.”

4) 학과 선택 동기

참여자들의 적응 전략은 남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이득에 대한 정보의 양과 학과 선택 동기에 대한 확신 및 성취에 대한 의지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학

과 선택 동기에 대해 확신과 주관적 의지를 가진 참여자들의 경우 좀 더 적극적인 적응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참여자들은 대학 진학 선택의 시기 이전부터 간호학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간호학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수집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 선택 시 동기 부여는 주로 친분이 있는 간호사나 간호사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친구, 가족 그리고 친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선생님의 권유>

“처음에는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부모형제의 권유>

“누나가 두 분이 간호사였고, 형수님도 간호조무사 출신이시고, 호주에 있는 사촌동생도 간호학을 하였고, 주위에 남자 간호사가 많이 진출한다는 얘기를 듣고 특별히 가족의 반대 없이 간호학을 선택하게 되었죠.”

<본인의 의지>

“학교를 선택한 동기가 선교 때문에, 캄보디아 선교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어요.”

중심현상-불편감

불편감은 간호학과 내 남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경험에서 중심적인 현상이며 남학생들이 다양한 전략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소수의 다른 성으로부터 초래된 불편감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다수의 여학생 집단 내에서 소수의 남학생들은 여학생 문화로부터 동떨어짐을 경험하였고, 분명한 격차를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1) 불편감

남자 간호학생은 여학생 집단속에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이질적인 성 문화를 경험하면서, 간호학과라는 동일한 환경에서 비슷한 학교생활을 하더라도 결국 여학생 문화와 남학생 문화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상대방의 성 문화를 매우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질적인 성 문화로 인해 여학생 집단으로부터 소외된 남학생들은 학교생활 적응 경험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여학생들과 다른 학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밀림>

“오빠가 PPT를 잘 만드니까 오빠가 만들어 발표하려면 오빠가 처음부터 다해야 할 거 같아. 이런 식으로 내밀리는 거지요”

<희생을 강요>

“축제때 물 풍선 맞는 건 남학생이지요. 이런 식으로 시작되면 계속 남학생은 그래야 하거든요.”

중재적 조건-주위로부터의 지지, 개인적인 성향, 미래에 대한 확신

중심현상인 불편감을 극복하기 위한 중재 상황, 즉 집단 내에서 소수로 존재하는 불편감에 대처하는 적응 전략은 학과 선택에 대한 주위로부터 지지 받기, 개인적 성향, 미래에 대한 확신, 의미 찾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주위로부터의 지지

외부자원으로부터의 물리적, 정서적 지지는 소수의 남학생이 집단 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참여자들의 경우 친구, 선배, 교수로부터 다양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들은 남자들끼리의 새로운 집단을 구성하면서 동성으로부터의 지지도 받고 있었다.

<역할 모델-롤 모델과의 만남>

“선생님들 보면서 나도 몇 년 후에 저 모습으로 되겠구나, ER 같은 곳에서 실습 나가면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간호사의 업무 속에서 역할 모델을 찾게 된 거 같아요.”

<역할 모델-남자 선배의 성공>

“남학생 모임이 있어요. 04학번 형들이랑 잘 만나요. 취업한 형들이요. 이번에 졸업한 노OO, 김OO형들도 만나요. 다 잘 됐더라고요. 이야기 많이 듣고 도움이 많이 되요”

<지지받기-동성 간의 지지>

“남학생 모임에 가면 남학생들도 여자애들처럼 뒷이야기 해요. 조별 과제때 여자애들이 이랬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지지받기-동성 선배의 지지>

“또 남학생들 모임에서 롤 모델을 찾게 되기도 해요. 남자 졸업한 선배가 와서 경험 이야기를 해 주면 도움이 많이 되요”

3) 개인적인 성향

참여자들은 기질, 성격과 같은 개인적 성향이 적응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즉 다수의 여학생 집단 속에서 소수의 남학생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성적(性的) 차이로 불가피하고 불변적인 조건이므로 최선의 적응 여부는 자신들이 얼마나 수용적이며 그에 따른 성공적인

전략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힘든 상황에서의 적응은 개인이 하기 나름이라는 참여자들의 신념과 주관성은 적극적인 적응 전략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 인정>

“간호대를 와서 적응을 못한다기 보다는 그 친구 성격이 아닐까 싶어요. 원래 성격이 말이 없고 그래서 같이 있어 봤자 힘들어 할 거 같아서 일부러 부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여학생에 대한 인식변화-도움받기>

“스터디는 아니라도 함께 모여서 공부는 했어요. 힘들지만 같이 앉아 있다는 게 큰 도움이 됐고, 거기서 만난 여학생들에게 도움도 받았어요. ‘오빠가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그러면 자료 정리한 것도 주고 그래서 처음에 여자애들에게 실망하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얻는 게 참 많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4) 미래에 대한 확신

참여자들은 간호학과 졸업 후 진로와 취업의 방향이 비교적 뚜렷하게 결정되어 있어 진로 선택에 있어 큰 혼돈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남자 간호사라는 희소성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으며, 실제 재학 중인 남학생으로서의 장점을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부 남학생들은 해외 취업과 이민이 비교적 쉬운 간호사의 직업적 특성을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다.

<미래계획-향후 구체적 계획 세움>

“봉사하며 살고 싶어졌어요. 늙어서도 할 수 있는게 의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구요”

<이득-미래에 대한 보장>

“컴퓨터 공학 전공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도 용산에서 복사품이 나오고 개발한게 아무것도 안되는 거 보고 이걸 아니다 싶고, 군대 갔다 오고 의료일을 하고 싶었는데... 남자 간호사 전망이 좋다는 이야기도 듣고”

<이득-남학생에게 주어지는 이득>

“간호학이 남자 간호사는 초창기에 속하잖아요. 내가 공부하면 발전할 수 있겠구나”

5) 의미찾기

참여자들이 휴학, 자퇴, 전과 등으로 이탈하지 않고 모두 재학 중인 결정적인 이유는 남학생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찾고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지내기 위해 “의미 발견”과 같은 적극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미발견-간호학의 매력>

“몸은 힘들지만 힘든 만큼 소득이 부응하고, 또 소득을 떠나서 힘든 만큼 만족 할 수 있는 환자들의 아픈 데를 만져주고... 좋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는 직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미발견-CPR 경험>

“ER 실습 때 CPR을 종일 한 적이 있었어요. 종일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 배도 고프고, 그런데 환자 보호자가 오더니 어머니 하고 우는데...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환자, 보호자에게 큰 의미 있는 일구나 싶고, 환자를 대하거나 또 친구들이 하는 거 보고 또 변화가 되는 거 같아요”

<의미발견-우월의식>

“봉사 갈 때도 간호사가 더 유용하고 요양원도 들어갈 수 있고, 의사보다 좋은 거 같고 적응하기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의미발견-아르바이트 경험>

“1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습니다. 근로학생하면서 간호와 친숙해 질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어요.”

작용/상호 작용 전략-다스리기

대부분 참여자들은 현실은 힘들지만 반드시 졸업은 해야 하고 졸업까지의 모든 힘겨움은 어차피 받아들여야 하는 과정이기에 마음을 다스리며 노력하였다. 참여자들은 다수의 여학생 집단이 만들어 놓은 특유의 문화 속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여학생들과 함께 하려는 긍정적인 노력의 과정을 볼 수 있었다.

<현실적인 꿈의 형성-실습 과정에서 간호 현실 발견>

“실습을 나와서는 직접 보면서 신규 선생님들 타는 모습도 보고 간호수행을 보면서 현실적인 간호사로서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노력-먼저 다가감>

“제가 자료라도 먼저 주면 부탁하기도 쉽고 개네들도 잘 주더라고요”

<노력-성격 변화됨>

“성격 많이 변했어요. 여성화 되는 거 같아요. 모든 면에서요. 우선 말이 느려지고, 많아지고, 생각하는 것도 작아지고...”

<노력-자발적인 노력>

“근데 여기 오니까 10중 7은 여자고... 사람에게 맞춰주는 능력이 생기는 거 같아요. 원래 저는 고집이 세었거든요.”

<마음먹기-군대에 대한 양가 감정>

“군대... 간호과는 그게 단점인거 같아예~ 공부하다가 중간에 흐름이 끊기는 게. 군대 갔다 와서 마음 바로 잡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군대 갔다 와서도 그냥 전에 하던 생활과 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인거 같아예~ 마음먹기가 제일 중요한 거 같고.”

결과-적응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현 상황에 적응하고 있거나 아니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은 힘겨운 과정이지만 스스로 모든 생활에 만족해하고 도피 혹은 탈출의 형태로 일탈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실 타협-처세술>

“성격이 그렇게 된 건 아닌데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말을 많이 하게 되었거나 그런 거가 있어요. 아마 처세술 같아요.”

<긍정적 변화-학업에 대한 변화>

“공부를 당연히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변한 것이 좋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잖아요. 당연히 공부를 해야 한다는 내가 변한 것이 신기해요”

<미래의 발견-정책 참여의 필요성>

“임상에 남자가 많아져서 정계에도 가서 정책에 관여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요. 또 정책이 따라 줘야 하잖아요.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좀 생각했으면.....”

논 의

전문직인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학을 선택한 남학생들은 자랑스러움과 기대감으로 대학생활에 임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기대 밖의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것은 본 연구를 통하여 언급한 것처럼 ‘불편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인식 구조, 행동 양식, 표현 방식 등의 다름으로 나타나는 여학생과의 성 차이에서 오는 외로움의 인식이다. 참여자들은 성의 다름에서 오는 호기심보다 불편감이 더 크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주류인 여성 문화에 동참하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간호학을 선택한 후 남학생들이 성역할 고정 관념과 여학생 중심의 환경과 관련해 심리적 갈등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최선주(200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여자대학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 된 이후 남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최연실, 박한샘과 김희숙(2004)의 연구에서 남학생들은 여학생 집단 모임에 끼어드는 것을 가장 어려워했고, 여학

생 문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들과의 의사소통을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과제 수행에서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여학생들의 인식 구조의 차이와 태도를 불편해 했다.

불편감이 나타나는 근본 원인은 다름에 있었다. 예로부터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며 역할에 구분이 있다고 배워온 가부장적인 문화는, 심지어 신세대의 사람들의 남성과 여성의 인식에 깊게 뿌리 박혀 있으며 이는 결국 행위로서 외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남학생들은 지극히 여성적인 간호학이라는 여성 그룹 문화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 이런 행동으로 발생하는 인식과 사고의 차이에서 다름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남녀의 인지 및 행동 패턴이 다름으로 인해 서로 다른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그 결과 여성을 다르다고 인식하게 되므로 여학생의 문화 속에서 분리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여학생들의 인지 및 행동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남녀 간 일차리 과정의 차이 때문에 여성 집단의 특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여학생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중심 현상으로서의 불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마다 다양한 극복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맥락으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마음먹기를 다르게 하여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여학생과 다르다는 불편함으로 인해 분리되어짐과 거리낌 보다는 의미 찾기와 같은 적응 노력을 사용하고, 먼저 여학생 집단 속으로 다가가거나 그들의 인식과 행동을 따라함으로 집단 속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었다.

Haywood (1994)는 간호직을 선택한 남성들이 여성스럽고, 동성애적이기에 간호직을 선택했다는 것이 과거 일반인의 의식이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Maseon (2001)은 남자 간호사들이 타인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다른 직장에서 느낄 수 없는 정서적인 면을 느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남성들이 간호직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간호학을 선택한 남학생들은 졸업 후 안정된 직장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과, 소수 집단이기에 그 분야에서 더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이상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불편감을 극복해 나가며, 본인이 선택한 학과에 대한 자부심,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적응을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임상실습, 그리고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프리셉트나 멘토와 같은 성공적인 역할모델을 제시해 주고, 교수와의 잦은 만남을 통해 개인에 맞는 학교 적응 방법을 찾도록 하며, 양성 평등의 교과과정을 개발해 준다면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어려움 극복에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다.

가설검정: '간호학을 전공하는 남자 간호대학생들은 성 정체감 및 여학생 중심의 환경과 관련하여 심리적 갈등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나 자기 확신과 주변인의 지지를 통해 적응해 나갈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있어서의 중심현상은 불편감으로 여성중심 환경 속에서의 심리적 갈등과 여성문화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자기를 다스리고, 의미를 찾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탈출구를 찾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간호학을 전공한 남학생들이 겪는 경험과 적응에 대한 심층적인 탐색을 통해 적응의 의미체계에 대한 실제 이론을 파악하여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제언하고자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시행되었다. 참여자들은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 9명으로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의 심층 면담과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남학생들의 학과 적응경험의 중심현상은 불편감으로, 이는 남성과 여성의 다르다는 가부장적인 성역할의 인식과 다수의 여성 사이에서 소수의 남자라는 외로움과 부족한 인성 교육, 교과과정의 버거움 속에서 경쟁을 유발시키는 간호학문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이런 상태에서 남학생들은 개인의 다양성을 통해 긍정적 미래상 발견, 주위로부터 지지받기 등으로 상황을 극복하며, 여성이 대부분이어서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학교생활을 도피나 탈출 등의 일탈이 아닌,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남학생들이 긍정적인 경험을 갖고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성공적인 역할 모델 제시와 프리셉터 및 남자 선배와의 멘토링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강화한다.

둘째, 지도 교수와의 다각적이며 자연스러운 접촉과 만남을 통해 개개인에게 맞는 적응 방법을 찾도록 한다.

셋째, 양성 평등과 성(gender) 인지적 형성에 부합하는 교과 과정 개발과 주위의 편견에 노출된 남학생들의 실습 환경을 개선한다.

향후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자 간호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An, J. Y., Doo, H. J., Kim, N. J., Lee, J. S., & Lee, Y. K. (2005). The experience adaptation of male college nursing stud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4(2), 159-169.
- Avery, C. T. (2001). A conversation with luther: The opinion and predictions of Dr. Luther Christman [Motion picture]. Available from the American Assembly for Men in Nursing, 111 cornel, Lathan, NY12110.
- Boughn, S. (2001). Why women and men choose nursing. *Nursing & Health care Perspectives*, 22(1), 14-19.
- Brady, M. S., & Sherrod, D. R. (2003). Retaining men in nursing programs designed for woman. *Th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2(2), 159-162.
- Choi, S. J. (2003). *Male students' lived experience in the female-dominant nursing colle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Daegu.
- Choi, Y. S., Kim, H. S., & Park, H. S. (2004). Survey on coping pattern of male students in Seoul campus. *Shangmyung University Student Life Research Institute*, 18, 25-27.
- Digital BoSa, GuangJin-Gu, Seoul (2001). 'Male nurse needs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Retrieved July 22, 2009, Web site: http://www.medicalnews.co.kr/umap/sub.asp?news_pk=139999
- Doo, H. J., & Kim, Y. S. (2008). Study on male nursing college students', Subjectivity in their attitude toward job.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ocial Nursing Education*, 14(2), 167-175.
- Evans, J. (1997). Men in Nursing: Issues of gender segregation and hidden advantag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6(2), 226-231.
- Evans, J. (2004). Men nurse: A historical and feminist perspectiv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7(3), 321-328
- Glaser, B. (1978). *Theoretical sensitivity: Advances in the methodology of grounded theory*, Mill Valley, CA: The Sociology Press, 164.
- Haywood, M. (1994). Male order. *Nursing Times*, 90(20), 52.
- Jo, G. J., & Lee, H. S. (2004). Male students in the field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 Education*, 24(1), 187-214.
- Kim, C. M., Koh, M. H., Moon, J. H., Son, H. M., & Yi, M. S. (2003). The male nurses' experiences of adaptation in clinical sett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3(1), 17-25.
- Lee, D. J.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Maseon, P. (1991). Jobs for the boys. *Nursing Times*, 87(7), 35-37.
- Min, S. Y. (2006). Adjustment Experiences of students in nursing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5(4), 409-419.
- Strauss, A., & Corbin, J. (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Calif.: Sage Publications, 260-263.
- Suh, M. S. (2010). The study on the experience of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using Q-Methodological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0(4), 686-698.
- Sweet, S. J. (1995). The nurse doctor relationship: A selective literature review.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2, 165-170.
- Williams, C. L. (1995). Hidden advantages for men in nursing. *Nursing Administration Quarterly*, 19(2), 63-70.